



기획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Contents

- 2 [영화평] 당신에게 바라지 않는 딱 한가지
[기획] 싹둑, 자르고 싶은 필름
- 3 [활동] 아홉번째 안티 페스티벌 - 〈대통령과 춤을!〉
이프 - 총학생회 공동주관
[기획]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글썽
- 4-5 [특집] 총투표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특집] 사람들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잖아. 우리도 그래
[기획] 자취하는 사람이 아닌 자취하는 '여성'
- 매스미디어가 덕지덕지 붙여준, 그 이미지
- 6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내가 인정할 건, 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강하다는 거야
-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후기] 여성주의 학교, 달콤쌔름한 뒷이야기
- 7 [기획] 레즈비언 성폭력, 하이라크
[기획] 밤을 노니는 그녀들을 위하여
[광고] 2007 연세대학교 레즈비언 문화제
[광고] 제 10회 여성제 기획단 모집
[광고]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나는 강하다고 믿고 싶었다.

크고 작은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건 나와는 동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강한 여성상이라, 그런 일은 겪어본 일이 없어."라고 툭 내뱉을 정도로, 놀라고 상처입고 피 흘리던 나는 그 말 속에서 한번 더 바스라지고 있었다. 가슴 한켠이 편치 않으면서도 그랬다. 울면서도 웃었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귀를 막았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에게 한 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고, 눈물만 쏟아져 내렸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소리를 질러서 그래.'라며 아버지 개인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그건 그저 무의미한 증오만을 낳을 뿐이었다.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 공포를 학습했다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에게 분노를 표출했었다. 나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탓이 아니었으며,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게 통용되는 가부장제라는 구조에 화살을 꽂아야 했다. 물론 가부장제를 철폐시키고 재구성하는 게 무리일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목적을 위할 때는 관에서 그는 충분히 비난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경험으로, 온갖 매체에서 접하는 여성들의 경험에 동일시함으로써, 누군가 들고 온 무서운 소문으로 성폭력이라는 괴물에게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나는 공포에 굴종하도록 훈육되어 있었다. 그들의 지배에 익숙해진 나는,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두려워하기에 무뎠진 착한 관리대상이었다.

여성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나의 고통에 재갈을 물렸다.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스치는 기억의 파편을 외면했다. 나에게 그런 경험은 없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몸에 각인된 기억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돌출하며 그것이 거짓임을 알려왔다. 그것은 예고된 공격. 성폭력은 여성을 굴복시키고 무력화해,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피지배자인 여성에 대한 혐오가 반영된 이 사회에서 어떤 성폭력이 예고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을 직면할 때, 뻗뻗해지는 몸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와 움츠러드는 손발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당당한 행동과 상처를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나의 강함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었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고통과 유사한 것을 성폭력 피해로 지칭하며 한탄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쁜 놈들'에 대한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말하는 나조차도 가부장제가 인정하는 선 안에 있어야 했다. "나는 성녀인데 저 사람이 나를 창녀처럼 취급했어요."라고 말해야 했다.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고 말을 고르고 끝냈다.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성폭력의 경험은, 이미 내 경험이 아닌 것처럼, '착한 아이로 남을 수 있는' 부분만 남은 채 재단되어 있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쌍한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그 경험을 바란 적이 없는데도, 내가 자초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만 했다. 자초한 것처럼 보이면 가해자에게 돌아갈 책임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올까 두려웠다.

사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떤 사람도 터럽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야. 어떤 상황에서건 성폭력 가해자가 잘못된거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자. 뻣뻣한 밤길을 싸워서 돌려받자. 성폭력은 이상하고 특이한 경험이 아니야. 너의 고통을 믿고 말해도 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늦게 다녔어. 밤에는 그 길로 다니지 마. 조심하라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심한 건 아니지? 네가 착각하게 한 건 아니냐? 다 잊어버려. 그런 이야기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돼. 다음부터는 말지 않아도 택시타고 다녀. -이런 말 말고.

내 몸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다.

쭈뼛거리며 여성주의에 손을 내밀었고, 그것은 성폭력에 대하는 새로운 자세를 제시했다. 그 열리는 가능성에 숨이 턱턱 막혔다. 별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자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다. 쏟아져 나온 그녀들의 아픔과 슬픔이 나에게도 말을 걸었다. 넌 괜찮냐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난' 그녀들을 지켜본

후, 긴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리고 물음에 답하자고 생각했다.

내 몸의 경험을 돌아보기로 했다. 기억을 되새길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상처를 보듬기는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흠뻑 보기 시작하여 집요하게 더듬어갈수록 그토록 혐오스럽던 나의 기억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몸에 긍정의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다. 나를 채워가는 그 에너지에 조금씩 힘을 얻어 생동할 수 있었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난 어느날, 나는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후회와 한탄으로 뒤돌아보기를 꺼리고, 자기혐오로 공공 매단 내가, 놀랍게도 담담하고 사랑스럽게 나를 도닥이고 있었다.

볼 수 있어서 고마워.

내 경험을 폄하하고 비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폭력] 세 글자를 내가 직접 대면하고서야 가능했다. 내가 아닌, 권위있는 누군가가 인정해 주고, 성폭력 가해자가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어야만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줄 알았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피해자를 혐오하는 시선에 맞붙어 불쌍한 척 한다는 비뚤어진 시선이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슴이 파하고 눈물 흘리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난 믿지 않았을까. (내가 겪고 있는만큼 그/녀들도 알고 있을텐데.) 왜 나는 인정할 수 있는 나를 보지 못했을까. (마치 누군가 나의 눈을 가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수많은 그녀들이 성폭력을 말할 때 휘둘러만 했던 위선과 그로 인한 죄책감에 대해 토로했고, 그조차 말하지 못한 이들은 더 많았다. 왜 말할 수 없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성폭력에 익숙한 채 살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우리의 입을 막은 것처럼.) 눈가리개를 벗기고 재갈을 얹어준 여성주의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은 누군가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나의 경험은 내가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돌본다.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성폭력 피해는 '의식' 나는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성폭력에 대해 피해의식 운운하는 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이해하려 시도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에 되도 않을 오지랖만 넓은 사람이 아닐까. 성폭력 피해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 없고 아무도 배워야함을 일깨워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모르면 다가 아니다.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텐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아니라 '경험'이다. 파랗게 몸에 각인되는 기억이다. 그 경험에 대한 통제권은 오롯이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간, 여기까지는 추행'이라고 법이 통제해서도 안 되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병원의 의사나 약품이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피해자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의 기억을 돌아봄으로써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의 결론이 그것이 이해받을 수 있어야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치유해야 한다.

성적 억압이 가능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 사회, 남성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고 여성의 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품 거래되는 이 구조는 성폭력을 조장한다. 이 구조는 그것 자체가 고통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쉽게 덮어버린다.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여성주의가 필요하다고 떠든다.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할 여성주의적 가치 확립이 절실하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하다.

by_ 자몽

내가 쓰는 글은 언제나 여성주의에 대한 사랑과 맥 같다.
오늘도 울조린다. 여성주의에 만세

영화평

2006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이 영화를 봤을 때를 기억해 본다. 나는 누구와 있었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이란 단순한 것이기도 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란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한 것이라 겉 나에게 다시 환기시킨다. 나는 별 것 없는 내 감성명을 말해보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화 감독의,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라 부르는 사람의 인터뷰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너무도 늦게 돌리기 시작한 그(들)의 목소리. 여기 있는 나는 가해자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 걸까란 생각을 조용히 앉힌 구석에 묻은 채- 나는 내가 죄없이 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도 웅얼거린다.

당신에게 바라지 않는 딱 한가지

나는 '끔찍하게 정상적인'이라는 너무나 적절한 제목에 다시한번 감탄한다. 이 영화를 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정상이란 것은 정말 규정할 수 없는 걸까? - 이 제목이 전혀 왜곡도 과장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넌픽션인 이 다큐멘터리에서 감독은 가해자인 아저씨를 찾아가는 동안 그가 그녀를 마주하면 도망가거나 회피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같은 가해자의 또 다른 피해자인 그녀의 언니와 엄마와 함께 걸으면 한없이 유쾌하게 언니, 망치로 문을 고 정시킵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등 별에별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계획을 짜다. 가해자를 찾아가는 길고 긴 여정. 그녀들은 드디어 가해자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 재회를 통해 마주하는 것은 가해자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고 물어둔 기억이기에, 그녀들은 망설이고 망설이다 어렵게 그의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가해자와 마주친 순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how are you~!" 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인사를 던진다. 반전이란 것이 이렇게 침착하게 공포스러운 것이던가. 그렇게 그는 '끔찍하게 정상적'이다.

내가 그녀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를 일생 동안 힘들게했던 당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결국엔 당신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말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분노? 의외의 편안함? 당시 내가 가장 가

슴 아팠던 사건은 감독이 가해자를 만나고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그를 사람이라 생각하면 미워할 수 없다고 서럽게 우는 장면이었다. 일년이 지난 이제는 글썽...하고 여전히 답을 달지 못한채 이제 나는 나의 그 물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것'이고, 한 사람으로서 사는동안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을 한 순간으로 돌린다는 것도 그리고 어쩌면 '사과한다'는 행위도 것도 아주 웃기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가능할까? 영화에서 내가 알게 된 또 하나의 것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다만 그녀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딸의 성폭력 피해에 딸을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밖에 '이유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침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어머니 역시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백?에 흘린 어머니의 눈물은 이미 너무나 늦어 버린 것이며 그러니 이제는 각자 그리고 함께 치유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의 피해란 것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번지는 경계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비슷한 것이고 게다가 피해자가 '저 아파요'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나 더 잔인한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해보



자전 다큐 '끔찍하게 정상적인(Awful Normal)', 셀리스타 데이비스 감독

았다.

나는 성폭력의 경험이란 것을 타인의 것으로 여기는 것도, 당신도 언젠간 겪을 지 모르는 일이라고 공감할 뿐인 것도 모두 탐탁지 않다. 그렇게 타인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자난한 일이며 결국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이란 말이나. 그보다는 한없이 부족한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라고는 페미니즘의 언어를 빌려서든 다른 언어를 빌려서든 당신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피해의 상황'이란 존재해선 안되고 이것은 당신이 이 물음에 응답하든 그렇지 않은 일찍이 답이 나와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by. BEY

이젠 나와있는 답을 알고 싶습니다

씩. 뚝. 자르고 싶은 필름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아놔, 저건 모나-" 혹은 "영? 뭔가 구란데-" 하는 장면을 없으셨나요? 혹시 요런 장면을 보고 그러진 않으셨는지. 한번 모아봤어요. 씹. 뚝. 자르고 싶은 필름, 그리고 덧붙여 그 필름에 대놓고 하고픈 말들도, 잘라보는 거 뭐 어때요. 영상이 아름답고, 음악이 흐르고, 이야기까지 아름답게 담겨진 않은걸요.

씬5) 다시 집

영욱이 불같이 화를 낸다. 순희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영욱 :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거린다) 아니, 이 여편네가 지금 몇 신데 안 들어오고 있어?

수철 : (소파에 앉아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잡지를 뒤적이며) 요즘 엄마 좀 이상해요. 뭐, 힘든 거 있나?

영욱 : (참 나,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야, 니 엄마가 힘들게 뭐있어. 집에서 맨날 먹고 노는 사람이. 아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세상 무서운 거 모르나. 알아서 조심해서 아두위지면 들어와야 할 거 아니?

Re : 영욱에게 세상은 집에 아내여편네라니요. 허허. 상대방을 알리며 알아내려는 표현은 좋지 않아요.)가 있어야만 하는 세상과, 아내의 방갈을 빼앗을 수 있는 세상, 두 가지인가 보네요. 집은 언제나 삶의 재충전의 공간인 양 묘사되지만 과연 모든 이들에게 그런가요. 순희에게 집은 꼭 들어와야 하는 공간이고,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 있는 것보다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도리가 중요하다고 영욱이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순희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순희의 권리를 마음대로 제한하고 억압해버리는 세상, 순희의 기사노동은 먹고 노는 것이 되고 마는 그 공간이 마치 평화로운 공간인 양 말하는 영욱이 훨씬 이상하고 웃기죠.

#7) 조금씩 들리는 뉴스 소리, 집 클로즈업.

순재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화면 클로즈업으로 zoom인.

영거 : ... 최근 전주에서 밤늦은 시간,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좀처럼 가해자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늦은 밤길을 조심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BT뉴스, 박순 화였습니다.

Re : 여성들이 늦은 밤길을 조심하는 것은 결코 성폭력 사건의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경찰에게 수사에 더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던가, 죄를 지은 가해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으로 당부하던가, 혹은 성폭력 사건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건설적인 바란을 사회에 가해야 하지 않겠어요? 성폭력 사건의 예방에 있어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들이 늦은 밤길을 다닌 것이 성폭력을 유발했으며, 그렇기에 피해자인 여성이 동시에 잘못도 했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만든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늦은 밤길까지 여성들이 할보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언론이 조장해야 할 사회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의 그 보도는 가해자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씬 1) 이랑이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있다. 즐거워 보이지만, 뭔가 불안한 듯 흔들리는 화면.

화면 바뀌서, 오토바이를 타고 뱅-달리는 기승. 멈춰선 곳에 당구라는 표지 zoom인. 문이 쾅 하고 열린다.

이랑 : (놀란 눈) 어, 기승이잖아?

기승 : (이랑에게 돌진하여 소리친다.) 나와

이랑 : (어이없다) 미친놈.

기승, 이랑 손 붙잡고 당구장 밖으로 나온다. 오토바이에 태우는, 헬멧을 씌우려고 하는데, 이랑 어이없어 웃는다.

이랑 : 야, 너 뭐야.

기승 : 너 내게 해. 누나, 이제 내 여자야.

Re : 사람이 니꺼 내꺼가 어딴데요. 갑자기 나 타나서 내 여자라니. 당당하게 너 뭐냐고 말하는 이랑의 일은 기승한테 들리지도 않나보죠? 오토바이 설정에, 터프하게만 알려면 멋지다는 강한 남성성으로 어릴때면, 실은 게 좋은 거 되고, 어이없는 게 괜찮은 거 되나요? 일방적인 예의없는 반말, 제멋대로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애정을 주는 게 아니라, 패를 끼치는 거예요.

scene 11) 재민, 순영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주제 음악 나오고.

재민 : (순영을 그윽하게 바라본다. 애고 부린다.) 아, 벌써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순영 : (순영도 아쉬워한다.) 알잖아. 우리 집

엄한 거. 이제 들어가야지.

재민, 순영의 손을 끈다. 으스스한 골목길로 들어가는. 재민이 앞장서고, 순영 끌려 들어간다. 가로등 불빛이 그윽하게 반짝인다. 벽에 순영을 밀치는 재민.

재민 : (갑자기 터프하다.) 실다. 너 들어 보내는 거. 순영 눈이 반짝인다. 재민, 순영에게 가볍게 입 맞춘다.

순영 : (머뭇거리며 말친다) 여기 우리 집 근처잖아. 안돼.

재민, 카리스마 있는 눈빛 보내고, 순영에게 키스한다.

가로등 불빛 zoom, 음악 점점 크게 흐른다.

Re : 오 너무 어이없잖아요. 아니 무슨, 이런 어이상실이 다 있어요. 상대방 의사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폭력이잖아요. 다군다나 이 폭력을 포장하는 로맨틱한 음악과 은근한 가로등 불빛이랑. 뽀, 밀치고, 안된다고 말하는 순영의 모습은 그저 머뭇거리려는 식으로 재민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도라면 그려주세요. 안된다고 말하는 걸 그저 핑거는거라고 넘겨주는 거. 그거 로맨스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을 로맨스로 둔갑시키지 좀 알구요. 이제 정녕 제대로 된 로맨스를 다뤄줄 순 없나요.

* 요기에 나온 특정 이름과 지명은 모두 '실정'입니다.

by. 우주

오리고 불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활동

아홉번째 안티 페스티벌

대통령과 춤을!

이프 - 총여학생회 공동주관

안티 페스티벌은 1999년 획일화된 아름다움과 성의 상품화를 '미스 코리아' 라는 공식적인 행사로 당연하게 용인해 온 세태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If you are free!> 라는 슬로건을 1회로 걸고 시작하여,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였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바탕으로 기획된 9회 안티 페스티벌은 언제나 제시되었던 후보들의 '비슷한' 공약과 현 정치 분위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즉 남성 중심적인, 주류의 분위기가 정치에서도 드러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번 안티 페스티벌이다. 한 예로 남성 정치인이 여성 기자에게 저지른 성추행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순간의 실수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지금의 사회 풍토를 반영한 '너무나 관대한 태도'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함은 한편으로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표현되는 주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류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설명하고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끊임없이 요구해 오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렇기에 안티 페스티벌은 <대통령과 춤을!>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치는 무엇이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일상이 바로 여성주의이고 정치라는 말처럼 여성주의

가 갖는 스펙트럼은 총여학생회 안에서, 총여학생회와 함께, 일상 안에서 고민하고 발돋움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할 것이다. 곧 일상이 정치이고 일상 없는 정치가 없듯이, 정치라는 이름은 삶의 한 단면을 차지한다. 여러 개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여성주의와 연대함으로써 정치를 말하고 지향점을 찾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기에 삶 속의 여성주의가 정치와 함께 하였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소신껏 내고 싶다는 열망은, 아홉 번째 행사를 주관하는 이프가 제안한 공동주관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에 함께하고, 실무를 공유하는 적극적인 공동주관이었기에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내용과 행사 장소 시설 논의 등을 나이가 다르고, 활동 분야와 경험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안티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백주년 기념관에는 장애인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기에 총여학생회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비장애인 중심인 사고가 반영된 많은 건물 중의 하나인) 백주년 기념관의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현실에 걸쳐져 있는 비장애인 중심적인 시선과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설 설치 논의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이프와 할 수 있었고, 행사 장소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에 대한 바람을 함께 담아서.



회의에서의 시간은 순간마다 의미있게 다가왔다. 이번 행사의 기초이기도 한 '대통령과 춤을!'이라는 주제에 대해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만큼의 활동 분야를 정하여 그것에 주력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함께 하는 사이 벌써 6월의 안티 페스티벌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고, 시간이 조용한 강물처럼 흘러감을 느낀다. 백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질 '대통령과 춤을!'이 즐거운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며, 일상에 단 한번밖에 없을 페스티벌에 당신도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삶과 춤은 자유롭다.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by_ 이상

기획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글썄.

안녕 가해자씨? 난 자궁이라고 해. 대고 반말이라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나한테 가한 그 폭력들을 생각하면 예의따위는 날려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오래전부터 너를 만나왔어. 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에서 내 성기를 만졌었지? 신기하지, 성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 때에도 난 부끄럽고 죽고 싶어서 수영장이 떠나라 영영 울었었어. 내가 여자아이라서, 어려서 그 폭력을 표현할 언어가 없고, 여성이어서 익숙한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기에 내가 만만했었지. 너는 정말이지 비겁하고 치졸하구나. 참, 이 기억은 내내 어린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동안은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근데 고등학교 때였나 그 때 나의 경험에 굉장히 성실하게 귀기울여주는 사람과 연애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뭇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어. 내가 어떻게 이 경험을 잊고 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교차해서 머리가 어지러웠고, 근데 말야, 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기억을 잊고 있다가 나야중에야 갑자기 기억난다고 해.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서 아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현실에 좌절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다시금 느껴서 성폭력 기억에 대한 치유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해. 법제도가 좀 피해자의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가해자로서의 네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운동에 동참해도 좋을 것 같아.

네가 나의 국어선생님이었을 때에는 나와 내 여자친구들의 말을 주물럭거렸어. 사람도 별로 없는 버스에서 몸을 밀착시키며 거친 숨을 뿜기도 했지. 흥대에 눌러 갈 때마다 골목에서 뛰어나와 시간을 묻는 척하며 학력였었고, 또 늦은 시간의 신촌 거리에서 날 차에 태우려고 내 팔을 잡

고 놓지 않던 것을 간신히 피해 도망쳤더니, 뒤에서 차로 쫓아오며 경적을 울려대던 날의 공포가 잊혀지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전화했더니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라고 내뱉어 눈물이 쏟아졌던 것도.

왜 이유없이 사람을 괴롭혀? 혹시 여성이나 남성이나 약해보이거나 강해보이거나 모두에게나 그렇게 행동해? 강파에게 눈을 뒤집고 자위를 하며 다가가거나 멍치 큰 남성의 뒤에서 접근해 엉덩이에 성기를 부비기도 해? 너는 누구에게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여성에게는 성폭력을 가해도 된다'고 학습받은 사람이야? 전자면 제발 네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담이라도 받기를 권할게. 후자면 너보다 사회적/신체적 약자라고 무조건 괴롭혀도 된다는 유아기적 착각을 버리고, 여성이 나와 같이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점과 누군가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해.

지금 나에게서 언어가 있어. 너의 행동이 나에게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 너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언어. 그런데도 네가 무서워, 밤길에 네가 나에게 소리지르고 내 스타킹을 쳐다보며 심문소리를 내면, 속으로는 그만두게 해야 한다. 안 되면 싸워야 한다. 면박을 줘서 물리쳐야 한다 되뇌며 걸으려는 코웃음쳐도, 가슴이 쿵쿵 뛰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려. 왜냐하면 성폭력 가해자인 너는 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난 그런 공포를 나의 경험으로, 나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으로 학습해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지할만한 어떠한 '싸움의 기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

살고 싶어. '여자라서 죽었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강남역에서 20대 여성이 파살' 되었다는 기사에 '똥장녀 잘 죽었다'는 댓글이 달리는 이 사회에서도 여성인 나는 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자꾸

줄어들도록 네가 골목길을 장악하고, 대중교통을 장악하고, 밤 시간을 장악하고,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의 사고를 장악하지만, 난 그 모든 시공간을 잃지 않은 채 살고 싶어.

그리고 난 살려고 노력해.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나의 경험을 공감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들이 공명할 수 있음에 기뻐해. 분노해도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너들과 함께 고민하며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알게 되었어. 머리로 알고있는만큼 따라주지 않는 나의 몸이 가끔은 야속하지만 자꾸 움츠러들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아.

흥대에서도, 신촌에서도, 학교에서도, 버스나 전철에서도, 내 기억속에서도, 난 힘내서 살아갈거야. 그리고 다음엔 반격할거야. 역을하고 부끄러운거 이제 그만둘거야. 어금니 꼭 물어라. 응?

후신1 웬만하면 자위는 집에서 하길 바래. 자꾸 너의 자위는 모습을 보여주려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거든. 스타킹이 필요하면 G마켓에 들어가 봐. 얼마 안 해. 지난번에 내가 관심을 표했던 내 줄무늬 스타킹은 1900원에 배송료 무료였어.

후신2 이 글을 읽는 남들, 모든 남성을 성폭력 가해자로 상정했다고 또 오해할 것 같은데, 그냥 이젠 내가 만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내 얘기!!

by_ 자궁
못자라 나 진지해

특집

총투표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입장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위한 총투표가 26.74%의 투표율로 무산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총투표의 무산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총학생회가 '극단적 페미니즘', '여학우들과의 괴리'와 같은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해 총여학생회를 비판했으나, 그 단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도, 현 총여학생회의 관련성을 지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총학생회가 다만 이목을 끌기 위하여 총여학생회의 이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총여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새로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19대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은, 총여학생회가 기초단위와 일상적인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과 여학생 휴게실 개선 운동을 통해 각 단과대학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여성주의 소모임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기초단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였으나,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문을 발행해 학우 여러분과 지면으로 만나고, 모든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를 벌이는 등, 다른 방식의 창구를 열었으나 기초 단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에 공감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대외기구인 총여학생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깊이 반성하며, 그에 따른 변화를 모색하여 저희를 여학생 대표기구로 인정해주신 여러분을 더 이상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라는 기구는 아직 연세 사회에 필요합니다. 여전히 총여학생회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학내의 성차별적 분위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여학생 휴게실의 설치 및 개선, 생리결석제의 시행, 강의실 언어 성폭력 방지와 같은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총투표 기간 중, 총여학생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엽서들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신문의 지지, 자발적인 1인

자보로 총여학생회의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학내 구성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총여학생회는 위에 언급한 현재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총여학생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총투표가 진행되던 기간에 저희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더욱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이를 설명하는 자보전을 펼쳤습니다. 또, 화장실 신문을 발간하여 19대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정책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교육권과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반/학회 혹은 소모임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의사 전달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과대 주체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어 단과대 여학생 대표 기구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자치단체와 단과대가 참여하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연세 대학교 자치단체 연대 (여연자연)' 테이블을 활성화하고 의의를 강화하여 더욱 직접적인 학우 여러분의 비판과 견제의 통로로 개편하려 합니다.

이번 총투표 사태의 발단은, 총학생회장의 권력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칙을 악용한 총학생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된 44대 총학생회 선거가 3일 간 51%의 투표율을 보인 것에 반해, 외부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는 등, 세간을 주목하게 했던 이번 총투표에는 5일 동안 26.74%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학생회칙 개정이라는 대사건에 대하여 학우들의 의증을 묻거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절차 없이 예/아니오에 답할 것만을 요구한 것이 학우들의 실망과 무관심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보를 고집한 것과 회칙 개악안의 발의로 연세 사회를 일순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태도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나, 회칙 개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남아있습니다.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는 현 회칙이 현재까지 연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학생 자치기구들이 회칙에 의하지 않고도 상호 의사소통과 합의, 협상에 의하여 서로의 활동을 조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서로에 대한 신뢰에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총투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생사회를 이루는 회칙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총학생회의 도덕성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회칙의 허점을 이용하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회칙 자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 회칙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지점, 그리고 더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학생들 간의 활발한 논의와 논쟁을 거치고 연세 사회 구성원 모두가 회칙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연세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칙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학생회 회칙은 연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학생 대표자들은 물론, 회칙 개정에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학우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재구축한다는 신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칙 개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학내 구성원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여학생회에 전달하신 많은 의견과 비판에 고개 숙여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총여학생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총여학생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도 활발한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대 총여학생회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특집

사람들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잖아. 우리도 그래

지난 두 달간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싸우고, 이야기했다. 총투표라는 사건이 우리의 사활을 좌지우지 하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 자신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고, 또 어떤 친구는 분노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쓰기도 했다.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담뱃불과 신나를 들고 분노를 사그라뜨리지 못하기도 하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의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총여학생회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총투표기간 동안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의 글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하였다. '~규탄한다!'는 식의 '공격적인' 말투가 들어간 자보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여자들'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중도 앞에 나타나 사망사망한 글씨와 처절한 내용이 담긴 자보전을 하는 우리를 보고, '도대체 뭐하는 애들일까?'라는 의문을 품었는지 모른다. 실은 그게 우리의 모

습이다. 우리는 분노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 줄도 알고, 흔히 남들 다하는 연애이야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총여학생회에 대한 생각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한번 걸러진 시각으로 우릴 바라본다.(본인의 경우, "너 총여야?"라는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사람이 아닌, '총여'로 만들었을까?

많은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사이를 궁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투표가 '총학vs총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도 가능할 법하다. 총여학생회실에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총학생회실. 우린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소한 일에도 너무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결투다!"라고 서로 주먹을 불끈 쥐지 않는다. 오히려 인정한 미소를 띠는 우리 총회장님은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주셨다. 그렇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다음날, '총학, 총여 대체기구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연세춘추에 실렸으며, 또 한 번 우리에게 미



자취하는 사람이 아닌 자취하는 '여성'

매스미디어가 덕지덕지 붙여준, 그 이미지

나는 '혼자 산다.'

나는 '혼자 산다.' 대학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꼭 집어서 갈 수 없는 학벌주의 사회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나의 '혼자 산다.'는 많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비단 '나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종종 선정적인 '요기 거리'로서 성폭력을 다룬다. 인터넷 신문뿐인가? 내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매스 미디어는 이런 '요기 거리'를 좋아한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멋지게 포장해서 보여준다. (이런 경우, 대부분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 의해서 '구출'되곤 한다.) 최근 어떤 사건에 관해서는 '밤늦게' '차마를 입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잔뜩 붙인 채 그들의 '요기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렇다면 나와 이 사건은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까.

나는 자주 밤늦게 집에 들어간다.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이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느라 이기도 하고, 술을 먹느라 이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에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을 꼭 쥐고 밤길을 걷는다. 그리고 속으로 계속 중얼거린다. 누군가 갑자기 덮치면, 칼을 들이대면, 총을 들이대면, 열쇠로 얼굴을 그어버리는 거야. 이 순간, 우리 나라가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때부터 긴장해버리고, 그 사람이 조용히 지나간다면, 다시 한숨을 내쉬면서 재빨리 걸음을 간다. 특히, 차마라도 있었을 때 나의 공포는 극에 달한다.

집에 들어가면 안전할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2~3초 정도의 순간 동안, 나는 혹시 강도가 계단에서 날 덮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강도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어떡하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풀 수 없는 고민에 빠진다.

이 세상 매스 미디어를 끌고 사는 이여, 그대만이 나에게 '오버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나!

나의 공포가 오버라고 생각되는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TV,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달랑 몇 초 동안 15세 시청 금지라는 글자가 뜨더라도 누구나 살짝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대한 매스미디어, 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 후 화면은 언제나 암전 처리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TV를 보고 있는 내게 부모님은 언제나 "혼자 다니면 안 돼" "밤 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라고 말했다. 물론 그런 말들은 대부분 '현실'이라는 것에 발을 디디고 있기는 하다. 매스 미디어 '만' 문제일 수 없고, 매스 미디어 '만' 해결되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매스 미디어 '도' 문제고, 매스 미디어는 '특히' 문제이다. '사실관계'만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뉴스와 알게 모르게 내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진부한 이미지들을 멋지게 포장하며 쏟아내던 드라마는 웬지 나를 세뇌시켰다.

뉴스에서는 떠든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요기거리'들을 늘어놓으며 떠든다. "밤길을 다니는 여성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서도 떠든다. 치한을 만난 여성을 그의 남성 애인이 구해내면서 자신의 '격정스러운' 마음을 화를 내며 표현한다. "그러게, 내가 밤길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이런 매스미디어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말한다. "아짜피 저런 일 당하면, 네 손해잖아. 조심해야지."

그래, 내 손해 맞다. 내 트라우마요, 내 충격이요, 내 경험이다. 예를 들어보자.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당할 수 있지만, 아왕이면 차 조심하면서 교통사고 안 당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은 '조심'의 수준이어야 한다. 교통사고 안 당하겠다고, 밖에 안 나다니는 것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내줄 때부터 운전자들한테 운전 조심을 시키고, 음주 운전 못하게 하고, 교통사고 내면 형장에 가두기도 하는 거다. 근데 왜 성폭력에 대해서는 아예 밤길을 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인가?



매스 미디어 E: 내가 언제?

그래, 대놓고 말한 적은 별로 없다. 밤길을 나다니지 말라! 라고 법으로 공표한 적도 없고, 캠페인을 한 적도 없으니, 매스 미디어는 내가 언제? 라고 발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스 미디어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는가. 그 속에서 언제나 '혼자'인 여성의 위협적인 현실을 줄줄이 내 보내며, 그래서 어떡하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도록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서는 손을 떼고 있는 모습을 '현실' 이합시키고 주구장창 내보낸다면, 정말이지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 제발, 밤길이 위험하니,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니, 라는 말은 접어둬라. 현실이 그렇다면 어떻게 밤길과 혼자 사는 것이 여성에게 안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 그 고민 속에서야 우리는 폭력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소리 소문으로 들리는 '내 여자친구' '내 딸'의 안전에 대한 그네들의 불안을 치유하는 길은 그것 뿐이다. 고민으로 여러 방법들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글씨, TV를 모니터링하면서 편지를 보내볼까? 매스 미디어에 대응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UCC를 제작하여 배포해볼까? 조금만 고개를 돌리니, 나를 담당하게 했던 것들 속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몇 번 견어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사우자.

by_ 상여
앗싸 투쟁

소로 인사하신 다음 날 '총여, 여학우들을 대변하나요, 가르쳐나오?' 라는 유인물을 학내에 뿌렸다. 만부(?)씩이나, 나는 도대체 그 유인물의 근거는 어디 있는건지 너무나 궁금해서, 배포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자신은 이 유인물에 대해 알지 못하며, 단지 체육부일 뿐이라고 하였다. 총회장님께서 이러한 인력동원까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보낸 미소의 속내는 '너희 한번 당해봐라'였을까? 우린 그 미소에 뒷통수 맞은 기분으로 다시 한 번 밤새워 가며 반박하는 글을 써야했고, 여전히 총회장님과 웃으면서 인사한다.

이번 총투표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중도 앞자보전이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지지염서를 받는 활동을 통해 우린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 받은 염서들은 총여살에 보물처럼 보관되어 있다. 자보전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오가며 이번 총투표의 부담함을 함께 공감해주었고, 함께 분노해주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중도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행사가 그동안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3일 정도 짧은 기간의 자보전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냈다고 말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언제나 여학생들과 소통해야함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층단위의 여학생들과의 소통은 잘 이뤄지지 못했다. 여학생들과의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지점을 통해 좀 더 노력하는 총여학생회가 되어야 함을 다짐하였다.

학내 구성원들은 총여학생회의 존재를 총여학생회라는 기구 자체, 각 커뮤니티에 뿌려진 염자보, 총여학생회에서 발행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혹시 그들은 총여학생회를 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염자보를 똑딱 만들어내는, 일하는 공장 정도로 보고 있지 않을까? 분명 총여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어디서 만들어져 나오는 공수품이 아니라,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어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총여학생회를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 가만

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학교에서 평범하게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렇듯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총여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유인물을 뿌리는 등의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게 된다. 실은 이 글을 쓴 이유도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총투표기간 동안 총회장님과 웃으며 인사는 했더라도, 속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심시켰고, 살짝 험담도 하였다. 총여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펼친 총회장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하고, 인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리였다. 이렇듯 우린 감정에 솔직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총여에 대한 비난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도 사람이예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슬프긴 하지만,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도 우리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by_ 레이

저는 무서운 메이가 아니에요. 음주기우를 격하게 즐깁니다.

특집

총투표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입장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위한 총투표가 26.74%의 투표율로 무산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총투표의 무산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총학생회가 '극단적 페미니즘', '여학우들과의 괴리'와 같은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해 총여학생회를 비판했으나, 그 단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도, 현 총여학생회의 관련성을 지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총학생회가 다만 이목을 끌기 위하여 총여학생회의 이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총여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새로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19대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은, 총여학생회가 기초단위와 일상적인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과 여학생 휴게실 개선 운동을 통해 각 단과대학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여성주의 소모임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기초단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였으나,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문을 발행해 학우 여러분과 지면으로 만나고, 모든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를 벌이는 등, 다른 방식의 창구를 열었으나 기초 단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에 공감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대외기구인 총여학생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깊이 반성하며, 그에 따른 변화를 모색하여 저희를 여학생 대표기구로 인정해주신 여러분을 더 이상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라는 기구는 아직 연세 사회에 필요합니다. 여전히 총여학생회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학내의 성차별적 분위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여학생 휴게실의 설치 및 개선, 생리결석계의 시행, 강의실 언어성폭력 방지와 같은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총투표 기간 중, 총여학생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엽서들을 받았습니다. 화상실 신문의 지지, 자발적인 1인

자보로 총여학생회의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학내 구성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총여학생회는 위에 언급한 현재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총여학생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총투표가 진행되면 기간에 저희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더욱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이를 설명하는 자보전을 펼쳤습니다. 또, 화상실 신문을 발간하여 19대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정책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교육권과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반/학회 혹은 소모임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의사 전달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과대 주체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어 단과대 여학생 대표 기구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자치단체와 단과대가 참여하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연세 대학교 자치단체 연대 (여연자연)' 테이블을 활성화하고 의의를 강화하여 더욱 직접적인 학우 여러분의 비판과 견제의 통로로 개편하려 합니다.

이번 총투표 사태의 발단은, 총학생회장의 권력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칙을 악용한 총학생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된 44대 총학생회 선거가 3일 간 51%의 투표율을 보인 것에 반해, 외부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는 등, 세간을 주목하게 했던 이번 총투표에는 5일 동안 26.74%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학생회칙 개정이라는 대의에 대하여 학우들의 의중을 묻거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절차 없이 예/아니오에 답할 것만을 요구한 것이 학우들의 실망과 무관심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보를 고집한 것과 회칙 개악안의 발의로 연세 사회를 일순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태도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나, 회칙 개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남아있습니다.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는 현 회칙이 현재까지 연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학생 자치기구들이 회칙에 의하지 않고도 상호 의사소통과 합의, 협상에 의하여 서로의 활동을 조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서로에 대한 신뢰에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총투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생사회를 이루는 회칙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총학생회의 도덕성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회칙의 허점을 이용하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회칙 자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 회칙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지점, 그리고 더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학생들 간의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연세 사회 구성원 모두가 회칙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연세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칙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학생회 회칙은 연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학생 대표자들은 물론, 회칙 개정에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학우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재구축한다는 신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칙 개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학내 구성원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여학생회에 전달하신 많은 의견과 비판에 고개 숙여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총여학생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총여학생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도 활발한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대 총여학생회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특집

사람들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잖아.
우리도 그래

지난 두 달간 우리는 함께 울고, 웃고, 싸우고, 이야기했다. 총투표라는 사건이 우리의 사활을 좌지우지 하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 자신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고, 또 어떤 친구는 분노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쓰기도 했다.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담뱃불과 신나를 들고 분노를 사그라뜨리지 못하기도 하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의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총여학생회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총투표기간 동안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의 글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하였다. '~규탄한다!'는 식의 '공격적인' 발무가 들어간 자보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여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중도 앞에 나타나 사방사방한 글씨와 처절한 내용이 담긴 자보전을 하는 우리를 보고, '도대체 뭐하는 애들일까?'라는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실은 그게 우리의 모

습이다. 우리는 분노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 줄도 알고, 흔히 남들 다하는 연애이야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총여학생회에 대한 생각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한번 걸려진 시각으로 우릴 바라본다.(본인의 경우, "너 총여아?"라는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사람이 아닌, '총여'로 만들었을까?

많은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사이를 궁급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투표가 '총학vs총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도 가능한 법이다. 총여학생회실에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총학생회실. 우린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화상실을 갔다 오는 사소한 일에도 너무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결투다!"라고 서로 주먹을 불끈 쥐지 않는다.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띠는 우리 총회장님은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주셨다. 그렇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다음날, '총학, 총여 대제기구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연세춘추에 실렸으며, 또 한 번 우리에게 미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내가 인정할 건, 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강하다는 거야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2학년 때 교양 체육 수업 중 하나를 골라 들으려고 수강편람을 뒤지다가 호신술을 발견했다.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을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호신술 수업을 들었다. 수업은 재미있었다. 낙법, 방어 등의 기술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친구와 함께 넘어져도 보고, "앗!" 기합 소리도 내보고 했다. 그런데 호신술 수업을 수강할 때부터 뭔가 꺼림칙했던 기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호신술을 하기는 하는 건데 몸이 그리 자유롭지 않은 느낌. 가끔 드는 '이걸 왜하나.' 하는 생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내가 도대체 뭐가 불편한걸까.' 라고 나 자신에게 묻고, 알았다. 그건 '내 몸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내 머리 속 가득한 물음표들이 답을 원하는 것이었다.

난 도대체 언제부터 몸이 둔해지기 시작했을까.

사회는 '여성인 나'에게 끊임없이 약하기를 강요한다. 하고 싶은 놀이와 움직이는 몸의 범위에는 언제나 '여자아이'로서 할 수 있는 것, 조심해야 한다. 적어도 너무 뛰어다니지는 말고, 너무 큰 소리 내지는 말아야 한다. 는 등의 말이 따라다닌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는 '놀이'라는 건 정해져있었다.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거나, "동네 남자애들이 '관심의 표현'으로 고무줄을 언제 끊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고무줄놀이를 하거나, 좀 뛰어다니는 얼음병을 하거나 정도였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자애들이 하는 운동과, 내가 하는 놀이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여학생인 나에게 있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란 어렸을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말뚝 박기와 고무줄 놀이였지만, 남학생인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공놀이를 넘어서는 농구와 축구, 점수 따기와 내기가 가능한 운동이었다.

'강한 그들'은 만들어진다.

그렇다. 생각해 보면 '남성인 그들'은 강하다. 우락부락한 근육이 없어도 괜찮다. 군대를 다녀오면 더 강하지만 다녀오기 전이어서도 괜찮다. 이들이 강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때문에. 하지만 누가 태어날 때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놀며 '내가 제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누가 본디 공이 너무나 좋아서 공을 끼고 다녔겠는가. 농구공을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농구공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재미있게 놀고, 점점 땀 냄새도 자랑스러워진 것이겠지. 사회가 말하는 강한 남성성과, 근육과, 운동은 그렇게 연결되고,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강한 남성성을 통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 약한 여성을 지키는 것이다.

지켜져야 할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자주 사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딸, 어머니, 여학생들 - 여성 - 은 오빠, 아버지, 남학생, 남자 친구, 선배, - 남성 - 에게 기대도 되며, 기대야 하며, 그래야 너는 여성이고 나는 남성이고, '서로 함께 어울리는 사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켜주진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가. 강한 그들은 기대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는 다 똑같아. 오빠만 빼고 믿지마."라고 말하다가, 순식간에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야."라고 말하지 않나. 약한 여성과 강한 남성, 지켜져야 하는 여성과



www.pencilpencil.com

지켜주는 남성의 구도는 폭력도 로맨스로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환상일 뿐이다.

오히려 지켜져야 하는 것은, 내안의 힘을 카울 수 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다. 나를 점차 약하게만 만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내가 널 지켜줄게.' 라는 허울 좋은 말은 끊임없이 내가 혼자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런데 도대체 강한 남성들은 여성들을 왜 지켜준다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지켜준다고, 그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일까. 그건 지켜주는 그것이 언제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현재 사회에서의 '여성성' 일 뿐이다. 가녀리고, 약하고, 아직은 보호받아야 하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는 여성은 약하고, 남성에 의해 그것이 지켜질 수도 있으며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남성과 약한 여성의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아줌마는 강하고, 어머니는 강하기에 여성인 아줌마와 어머니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어머니도 여자였습니다." 라고 하며 립스틱 바르는 광고가 괜히 나왔을까. 그렇다. 아줌마, 어머니, 여성을 같기 같기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여성'을 지킨다는 것도 다 웃긴 말일 거다.

나는 강해. 이제 내안의 힘을 키우자.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운 호신술은 나는 내가 지킨다. 라고 말하며, 최소한 내가 나를 지킬 순 있어야지. 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말들이, 이 전제가 재미나게 호신술을 배우는 동안 불쑥 불쑥 궁금하고 불편했다. 어떤 사회에서, 나의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일까.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이, 나 스스로가 가진 사회나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약해."라고 말해지는 것이 너무나 맘에 들지 않기에, 당당하자고 강해지자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킨다고 했을 때 보통 일컫는 것이나, 말해지는 것들이란 "너에게 가려진 여성성이 있지 않나,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야."라며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말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가졌던 질문들에 답하면서, 호신술에 대해 느낀 불편한 감정들은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호신이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을 키우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라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각종 기술들을 익히는 호신술이 아닌 나에게 힘이란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이란 무엇이며, 난 무엇을 연마해 나가며 내 몸과 친해지고 싶은 건지를 고민하는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을 만나게 됐다.

날이 좋다. 몸을 움직이면, 내 안의 숨어있는 힘이 좋아지며 몸들거릴 것만 같다. 6월,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이 학내에서 열린다. 나 자신의 힘, 늘려온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힘찬 기합과 함께 내가 나를 강하다며 인정하는 시간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

by_ 우주

내안의 침묵을 깨는 용기로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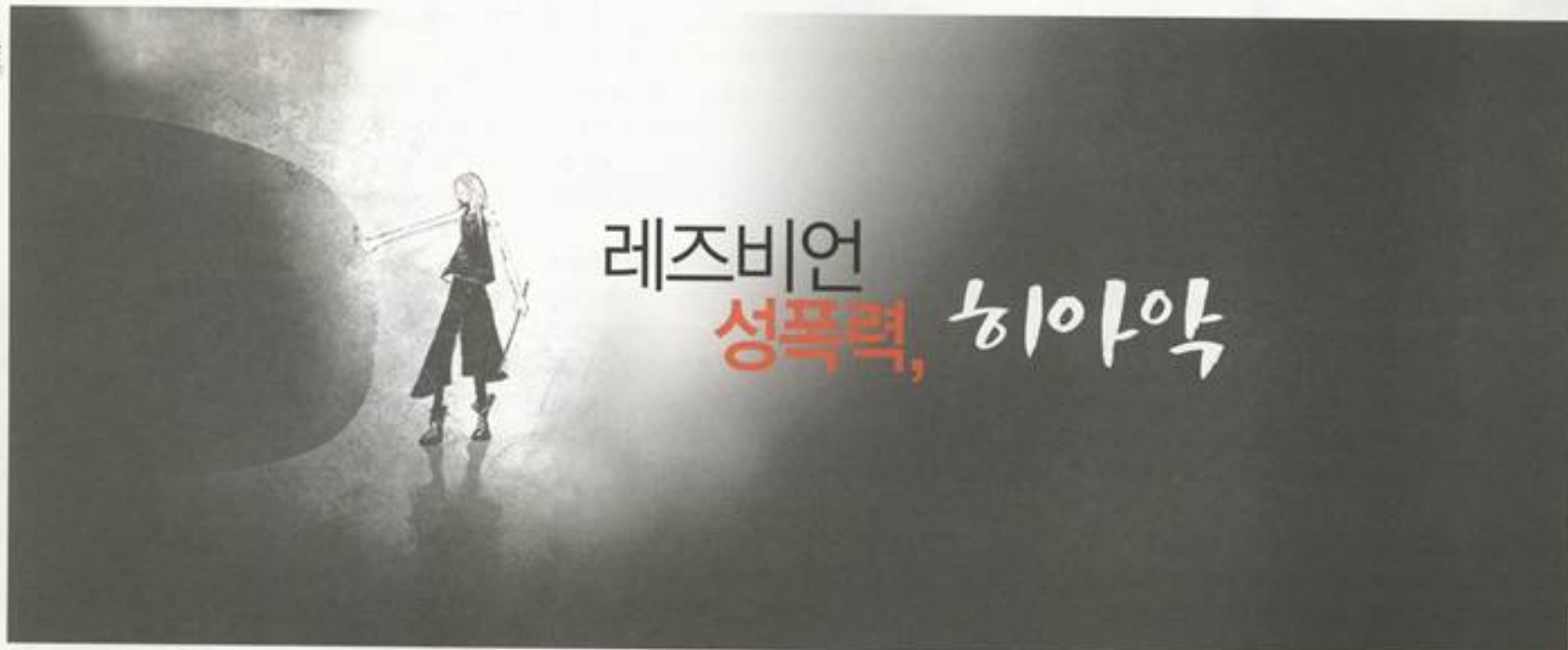
여성주의 학교, 달콤쌉싸름한

뒷이야기



- 현수 : 굿~♡
- 나누기 : 쿠쿠쿵 세미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미나는 계속된다 푸욱♡
- crocatio : 커리에서 여성주의자체에 함몰되지 않는 가능성. 앞으로 좀 넓은데서 많은 사람들과 하길 바랄.
- 구어운 예스 : 생각의 틀을 뚫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해 조금 아쉬운 듯...
- 오리 : 내 위치를 알고 모른다는 방계로 폭력적이지 않기 위해 해선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는 깨달음을 다시 배울 수 있었던 여성주의학교 좋았어요.
- 광어 : 뒤돌아볼 참작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세미나 너무 좋았고 특히 마지막 내안의 포비아 세미나에서 동성애 해방, 동성애 억압의 근원 동등 충분히 연구해 봐야 할 꼭지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서 좋았음 ㅎㅎ
- 지수 :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_<♡
- 쿠루루 : 항상 그저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러가 보다' 하고 물리나 만나 고려도 전혀없이 아무생각없이 받아들이었어요. 그 중엔 어떤지 찜찜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조차 그런가 보다 할 뿐 내가 받아줄 논리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몇주간의 세미나로 내 안에 그것들을 받아줄 확실한 구조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버겠지만, 적어도 확실히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 내에서 별로 제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의식하는가 생각하는 걸 많이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커리들을 미리 읽어가는 것도 정말 즐거웠구요.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 박진경 : 함께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며 혼자 책 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족한지 느꼈어요. 기분 좋은 자극이예요 ^^
- 슬픈 건 싫어, 초원 : 여성주의 학교에서의 모든 이야기가 학내에서 웅골웅골 퍼날 수 있길 모두 행복하길.
- 썬 :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돌아오는 고민들 역시 매일매일 세미나를 ㅋㅋ
- 베이 :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모처럼 설렘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여성주의로 성숙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 상어 : 바쁜 3월과 4월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은 꾸준히 계속되었다는 사실. 여성주의 세미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계속됩니다.
- 레이 : 여성주의학교는 새로운 여성주의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소소한 고민까지 동창 이야기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 내년에도 함께 하길 바래요♡
- 유나 : 매년 고질고질한 총학생회에서 고질고질하게 만나뵈서 ㅎㅎ 그래도, 참 좋은 시간 즐거웠어요. 아하하.
- 우주 : 커리를 준비하고, 기대감에 차서 준비했어요. 여성주의의 내공 살기가 열리고, 이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세미나 하거나 하면 됐었는데. 그걸 잘 못했네요. 아쉽고,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네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내보이고, 열어 뚫어요. 특별한 시간이 아니어도, 총학생회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 이상 : 삶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 이다. 세미나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
- 자몽 : 욕심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부끄러웠어요. 여성주의 학교에서 만난 분들과 점점 더 많이 함께 흥겹게 고민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



자, 우선 제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듯 하다. 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레즈비언에게 가하는 폭력, '레즈비언 성폭력' 하아악, '레즈비언' 이라는 단어에서, '성폭력' 이라는 단어에서 적어도 2번 정도는 사람들이 소름 끼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단어를 보자마자 소름끼칠 수도 있고, 단어에 대해서는 낱하게 지나가지만 '이건 너랑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야' 라는 요지의 필자의 글을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필자의 우스꽝스러운 상상으로 탄생한 제목인 듯 보이지만, 우스꽝스러움과 동시에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제부터 발끝에서부터 찾아오는 우스꽝스럽고 현실적인 소름들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한다.

레레레레, 레즈비언! ♪~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자마자 튀어나오는 온갖 호모포비아적인 반감들이 존재한다. 물론, 그 혐오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짜증나.'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저 병이잖아.'까지, 또는 넓은 아량심 속에 나타나는 '이해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건 싫어.'라는 클함. 하지만 그 다양성은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호모포비아, 결국 무슨 이유를 가져오든, 그냥 호모섹슈얼이라는 존재가 싫은 거다. 호모포비아는 이 다원화 사회 속에서 존중받아야 할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비하 혹은 경멸이 섞여있는 이데올로기는 범죄다. 단순히 이 이성애 중심적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성애만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이성애 중심적이라는 단어가 미흡할 수도 있다. 이는 말에 이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동성애와 대립과 상충하는 남성의 경험만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강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레즈비언을 '잘 몰라서'라는 변명으로 묻어두기에는, 그 호모포비아들이 실제적 폭력으로 레즈비언의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레즈비언에 대한 폭력들은 여성이라는 성별,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매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폭력들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性暴力

여기서 다시 한번 소름. 하아악, 성폭력이라는 단어만 뛰어나오면 '어두컴컴한 밤 골목' '치마를 입고' '늦은 귀가를 하던' '혼자 사는' '여성'이 '벌쫓 뛰어나온' '알지 못하는' '남성'에 의하여 등으로 많은 미디어에서 서술되던, 강간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성폭력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리적 성폭력도 존재한다. 레즈비언, 이라고 이

야기되니까 또 다시 알 수 없고, 뭘가 다를 것 같고, 심지어 머리에 뿔까지 달릴 듯한 (70년대에 북한 사람 묘사한 듯이 말이다) 사람이 생각되시는가? 하지만 레즈비언도 여성이다. 지금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그녀들이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면제' 되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다가 레즈비언들은 '레즈비언 탄생 설화'에 미친 듯이 빠져있는 이 사회의 잡다한 이야기들 속에 '남성을 잘 몰라서 레즈비언이 되었다'라는, '남성과 섹스를 해보지 않아서'라는 그들의 빈약한 상상력과 섹스와 성폭력도 구분하지 못하는 머리로 인해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도 추가될 뿐이다.

하지만 강간으로 대표되는 당신의 머릿 속의 그것만이 성폭력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하아악, 북하면 성폭력,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외쳐대는 것이 그렇게 소름끼침을 느끼는가? 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는 폭력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현실보다 더? 이 허구 현날 일어나는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은 강의 속에서 언어적 성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화 혹은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한 환경적인 성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성) 연애, (이성 커플로 구성되는) 가족 등을 이야기 하면서 당연한 듯이 “어떤 남자랑 결혼 할거야?” “남자 친구 있어?”라는 질문들이 수없이 오가는 속에서 그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자 친구 있다고 말 해버려?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해버려? 넌 이 세상에 헤태로 섹슈얼 커플 밖에 없을 것 같네!’ ... 온갖 생각들이 오가는 속에서 ‘그냥’ 사람들과 ‘평범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다지 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시나? 명칭은 뭐라도 좋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한가지 더, 일상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느끼는 ‘너무함’과 자신이 가한 일상적인 폭력이 ‘성폭력’이라고 명명된다고 해서 가해자가 느낄 ‘너무함’ 중 무엇이 더 너무한 것일까?

지금의 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레즈비언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은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레즈비언에 대한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실제적 폭력, 그 자체만을 문제시키기 위함은 아니다. 그 폭력을 가져오는 전제, 이성애중심주의와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가부장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실제적 폭력 역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성폭력 없는,
우리의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서

레즈비언에 대한 왜곡된 편견은 여성에 대한 그것과 같이 이야기 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서 남성 없이 존재하는 레즈비언의 섹슈얼리티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불온서적'이다. 레즈비언은 없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감박적 믿을 속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성폭력은 그녀들을 '정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인정’ 된다는 것? 폭력이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이성애 관계’의 일부분으로 포장된다. 게다가 그 여성이 레즈비언이라면, 레즈비언이라는 존재가 부정되는 이 사회에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러이러 그러그러한 이유 이 사회의 시각으로는 레즈비언 성폭력은 사라진다.

레즈비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비난의 시선을 받는다. 또한, '레즈비언'에 대한 성폭력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다.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즈비언'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웃팅이라는 레즈비언 성폭력이기도 하고, 아웃팅을 시키겠다는 협박 하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이 사회는 그녀 자신의 집, 직장, 학교, 모든 관계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

레즈비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즈비언에 대한 성폭력을 이야기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 사회는 '레즈비언 성폭력'이라는 말만 들어도, 하아악, 소름부터 돋아오르나 보다. 그 이유 없는 소름들을 멀리하고 폭력을 폭력이라 명할 수 있는 곳, 어디에 있을까. 최소한, 그 미악한 한 걸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호모토피아에 대한 성찰을 이루어내는 것. '레즈비언'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소름끼친다는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 소름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할 것 같다. 해보자.

P.S

일상 속 호모포비아에 대한 성찰을 같이 시작하실 분! 강의실에서 교수의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폭력이라고 함께 명명하실 분!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장됩니다.
antiphobia@yonsei.ac.kr로 제보하세요, 제보하신 내용은 총여학생회의 여러 행사에서 아금아금 폭로해나갈 것입니다!

by_ 연세대학교의 유일한 레즈비언 운동 단체♡ 내이름은 숙자비
목표는 폭력일 뿐 재빨리 변명 따위 개미헌터나 줘라
그리고 (레즈비언의 PC한 살아남기를 모색하는 즐거운 공동체
숙자비)가 될 당시 연락주셔서 pciesbian@hanmail.net

기획

밤을 노니는 그녀들을 위하여

안톤 수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보면 갖가지 처연한 장면들이 읽는 이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다. 이것을 읽으면서 나도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이러한 글을 써보리라 다짐하고는 했지만, 때 번 처연한 느낌은 커녕 꾸밈이 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꾸밈을 늘어놓으려 하고 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스스로가 처연한 그 모습을 그리면서.

밤을 거니는 나에게 지나가던 할아버지도, 나의 친구들도, 함께 거닐던 남자친구도 걱정의 한마디를 던지곤 한다. 위험하니, 지금 이곳에 있지 말라한다. 지금? 그렇다면 밤이라는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가. 밤이라는 시간이 문제라면 왜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할아버지와 남자친구는 밤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물었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이유는 단하나.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는 것 뿐. 그렇다면 여자의 밤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의 밤길은 남자의 것이었나 보다. 그러나 마음을 뒤흔들게 만드는 사건들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가능성을 따지다 보면, 나의 낮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닐지 두렵다. 세상의 낮까지도 남자만의 것이 되어 버리면, 나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곳에' 있지 말라한다.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가 여자인 나에게 안전한 장소

인지 의문이 든다. 누구는 '너의 집'으로 가라고 한다. 만약 한 여성이 가족하고 같이 산다고 해보자. 많은 이들이 여자에게 밤길이 위험하다고 할 때 구체적인 '증거'라고 드는 통계자료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중 이가 77%를 차지한다고 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0, 한국성폭력상담소)

들을 휩쓸만 봐도, 집 안에서 가족 내 폭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타나 있다. 그 통계들을 따온다면 정말 '그 곳'은 나에게 안전한 곳일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도 말하더라. 그렇다면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살고 있는 곳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여자에게 안전하다고 꼽을 수 있는 장소는 전무하다. 그런데 이런 여자만 아니라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하는 일 아닌가. 집이 없을 경우는 차차하고라도 혼자 사는 집, 가족과 같이 사는 집에서만 일어날 사건사고들의 '가능성'을(그들이 그렇게 나 객관적이고 확실하다고 믿고 있고 이유로 내세우는 통계자료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따져본다면 이 사회는 성별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위험한 곳이지 않은가.

위험한 세상에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 보면 결국 여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밤 문화가 위험하게 조성된 이유는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여성들에게로 돌리고 자신들은 무서운 것 없이 돌아다니는 가해자들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들이 알아서 몸을 움츠리는 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궁극적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시간이 언젠가, 밤이든 낮이든, 언론과 주변사람들은 그 원인을 '그녀'에게 돌리며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이렇게 흐려진 초점으로 인해 무엇이 핵심인지 간과하게 되고 결국 여자들 스스로가 행동을 경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실상 자취존의 치안은 경찰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밤을 위험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인 것을...

치안을 지켜야 할 자들이 피해를 입히는 자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동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이미 없어져 버릴 지도 모른다 불안전감이 엄습한다. 그 지난한 시간들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일상에 있어서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일 년에 한 번 있는 달빛시위에 참여해서 밤길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좋고, 일 년에 한 번은 서운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분노를 힘으로 전환해서 밤길 다니다를 조직해도 괜찮을 테다. 물론 이런 개인행동만으로 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로 돌리는 이야기들을 전멸시킬 수는 없다. 그래도 끊임없이 행동을 규제하고 움아매려는 시도들에 반기를 들으로써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작은 발걸음이라도 같이 걸어보자.

by 우나

아-호를 외치려면, 오늘 밤이 부치는구려.
밤 한끼 더 사주고, 사랑! 백만개 전해주소

P.S 제안합니다!

매년 밤길을 찾고 싶은 여성들이 스스로 힘을 얻고, 서로 힘을 주면서 달빛 아래를 거니는 '달빛시위'가 열립니다. 올해 2007년 역시 7월 6일 전국 곳곳에서 달빛아래 노니는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험하니까 그런 곳은 안 돼' 밤에 그렇게 다니면 위험해' 등등, 수많은 규제들에 대항할 힘을 기르고 싶은 분들께 올해 있을 달빛시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달빛 아래 크게 팔팔 웃으면서, 몸을 풀어보는 느낌하고 위험적인 시선들을 무시해주면서 밤을 노니는 그 기본 달빛시위를 통해 밤길의 두려움에 대항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밤길을 걸어봐요! :)

2007 레즈비언 문화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것은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긍정이다. 이것은 호모포비아가 가득한 세상에 내미는 도전장이다. 레즈비언 억압에 대해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에 음침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외치는 연대의 목소리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영화에서도 이야기하고, 전시에서도 이야기하고, 강연에서도 이야기하고, 워크샵에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학관 앞, 백암로, 그 외의 학내 곳곳에서 함께 하자.

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동성애자일 필요도, 여성일 필요도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억압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5월 30~6월 1일 학생회관 앞 부를생 가는 길

전시 〈당신과 나 사이의 틈〉

5월 30일 7시 백암관 강당

영화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OUT〉

5월 31일 7시 백암관 강당

강연 〈성정체성, 그 놓칠 수 없는 정치성〉

6월 1일 7시 장소는 메일로 공지됩니다.

영상제 〈일상, 쿼터 유토피아, 행동하는 호모포비아〉

워크샵 〈외롭고 웃긴 화곡 - 나를 들여다보는 역할극〉

※ 워크샵은 inside-out@yonsei.ac.kr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신청해주세요.

제 10회 여성제를 함께 꾸릴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



매년 연세대학교 학우들을 찾아가던 총학생회 주관의 여성제가 올해 열 번째 축제를 함께 꾸릴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여성주의적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 하시는 분, 혹은 매년 하는 여성제, 이번에는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분,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모두모두 환영이에요. 7월의 넷째주 어느 날, 첫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inside-out@yonsei.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정확한 날짜는 메일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여성주의 자기 방어 훈련에 함께해요!

용기,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에서 당신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내 안의 분노와 힘을 내 지르지 못한 경험이 혹 두려움과 공포를 괴물처럼 무시무시하게 만들진 않았나요?

19대 총학생회 <Inside OUT>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내지르는 소리를 통해, 내안의 힘을 확인하고 기르는 시간을 통해 내게 공포와 두려움을 줬던 대상과 상황이 분석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해보고자 합니다.

6월 8일 화요일, 내 안의 공포와 두려움이 나의 입과 용기와 마주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입' 기합소리로 노천극장 한편 채워봐요. 자기 방어가 가능한 집단 행동들도 몇 가지 배워 봐요. ^^

일시: 6월 8일 화요일 늦은 5시부터 약 2시간 **장소: 노천극장 제2연습실**

강사: 김민혜정(오매) (새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성주의 자기방어 운동팀, krisv@paran.com)

참가신청: 여학생만 참가신청 가능합니다.

inside-out@yonsei.ac.kr로 이름/소속/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세요. ^^